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회주의위력을 과시하는 조선

국제사회계가 찬양

《(변하고 희망을 키우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평양의 모습이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경제는 지속적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거리는 생기발랄하고 사람들은 화목하였으며 아이들은 웃고 떠든다.》

《조선은 지금까지 떠돌아 온 서방의 짐승들은 너무나 다른 나라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오랜 기간의 제재속에서도 조선이 웅장한 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운것이다.》

《2년전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와 달리 더욱 새롭게 변모된 평양을 보았다. 날로 발전되는 조선의 모습에서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도 평도주의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기상을 다시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들어온 인민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해 전진비약하는 공화

국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탄은 이뿐이 아니다. 기네스북문화사상연구회 회장은 조선방문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현대적인 살림집들,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터 등 보는것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서방의 선전과는 정반대이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조선을 알려면 이 나라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에스빠냐의 한 관광객은 평양의 거리를 거닐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양은 현대적미감이 나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사람들은 친근하였다, 조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와서 현실을 직접 볼것을 권고한다, 제재에 맞서 자기 할것은 다하는 조선을 바로 보고 서방의 거짓선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있다. 퇴폐적인것이 없고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이 자체로 생산보장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고있다.

로씨야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은 서방의 선전과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실지 조선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그들은 무엇을 지향하고있는가.

그들의 문명정도와 생활방식은 서방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평양에만도 문수물놀이장,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훌륭한 휴화장, 공원, 극장, 영

화관들이 있다. 백화점에는 손님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상품들이 쌓여있다.

조선사람들은 창조와 혁신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지향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각이 낳은것이다.

캄보자신문 《크메르 타임스》는 본사대표단의 다음과 같은 조선방문기를 게재하였다.

평양에서 첫눈에 안겨오는것은 바로 김일성주석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건립된 주체사상탑이다.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확고한 지도지침으로 삼고있는 조선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강한 나라이다.

자강력에 기초하여 참다운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한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주체》라는 말은 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다.

《주체》는 조선의 경제를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다.

로씨야민주주의자 전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또한 이 모든 성과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정책과 자력갱생의 원칙이 낳은 필수적결과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섰다.

쿠바의 프렌사 라미나통신은 조선은 인민이 주인된 존엄높은 나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정치사상강국이다,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며 나아가는 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대대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것을 전심으로 바라고 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구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팀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주행위이며 반동일행위이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으로서 그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북한관계문제,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세공조쯤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해칠뿐이다.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외세를 배격하고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는 자주와 단결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길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변모된 북한관계의 현실을 통해 우리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감으로써 어떤 엄혹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을 견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관계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한다.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묵인하고 그에 추종한다면 언제라도 북한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림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확고한 주동적요구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한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통일의 밝은 아침을 앞당겨오는 길이 있다.

리성철

《경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경도자와 인민이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경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경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zell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조선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게 된것은

김정은최고경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고상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전면적으로 꽃피고있다고 전하였다.

조선의 첫해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에 있다고 하면서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일심단결의 기초는 김정은각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있다, 김정은각하의 뜨거운 사랑과 정에 매혹된 전체 인민은 그의 경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김정은최고경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이 현실에 구현되고있는 여기에 조선식 사회주의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승수장구하는 비결이 있다고 평하였다.

로 받들어나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김정은최고경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이 현실에 구현되고있는 여기에 조선식 사회주의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승수장구하는 비결이 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대성산샘물공장 준공식 진행

풍치수려한 대성산지구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샘물공장이 새로 일떠세웠다.

대성산샘물공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강진에 이바지하는 맛좋은 샘물을 대량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대성산샘물공장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공장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대성산샘물공

장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는 경에하는 최고경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현신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에하는 최고경도자동지께서 주체 106(2017)년 5월 18일 대성산지구에 건설할 샘물공장의 이름을 《대성산샘물공》으로 명명해주시고 공장배치계획안과 설계안도 몸소 지도해주셨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간직하고 공장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시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내부에 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개발도입하면서 건설의 질과 속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시민들

에게 질 좋은 샘물을 정상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최고경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선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자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지난해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였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 평화와 통일의 선언인 북한선언들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북한선언들의 리행과정에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시의이른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이를 두고 통일을 바라는 민족성원 누구나 다 기뻐하였다.

얼마전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가 함께 발표한 《5.1절 120돐기념 북남로동자단체 공동성명》에서는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북남

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하여 북남의 로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을 전심으로 열망하는 조선인민들은 북한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화해단합의 분위기가 통일어로 이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지금 동족대결념이 뼈속까지 배인 남조선보수세력과 우리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는 어떻게 해서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의 정세흐름을 판문점선언 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며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질어가는가에 파국으로 치닫던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우리 겨레앞에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한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림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에서나 림장과 자세를 바로가져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

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면 북과 남이 어떤 때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해도 손잡고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힘있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켜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총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한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선언의 실천을 변함없이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은 겨레는 북한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김리만

《외세에 기댈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 남조선 각계층이 요구 —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속에서 북남선언리행과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 1일 민주로총은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2019 세계로동절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민주로총 통일위원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하여 남북의 로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열어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

다.》, 《당면하여 4.27부터 9.19까지(남북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을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환경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로동자의 자주교류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합쳤다.

한편 8일 부산 미곡평사관앞에서는 《법민련 부산

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주권련대》의 주최로 《남북관계 내정간섭(한미실무팀) 체제하라!》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법민련 부산연합》의장은 《우리는 외세에 기댈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스스로 결단해서 이 나라의 평화번영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8천만겨레의 그 마음

을 자신있게 받아들이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평양시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자주와 자결,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것》을 당국에 촉구하였다.

《부산주권련대》 공동대표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현대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과 환경으로

얼마전 우리는 새로 개건된 대성백화점이 편일 흥성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취재의 걸음을 옮겼다.

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경지도 부감할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벽체를 처리한 백화점은 멀리서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한 번진 대성백화점 상업과장은 백화점이 개업한 이후로 매일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일요일과 명절날에는 더욱 붐빈다고 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백화점의 1층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갖가지 식료품과 음료, 일용품들을 고르는 손님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얼마전에 결혼하였다 장국철, 리설경부부는 《새로 일떠선 대성백화점이 봉사환경도 좋고 봉사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왔다. 와 보니 소문그대로 새로운 봉사환경이 마음에 든다. 나날이 편리하고 윤택해지는 우리의 생활이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고 일상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품들을 1층에 전개하였다 한다.

그렇게 되니 작정에 다니는 가정주부들이 퇴근길에 갖가지 부식물과 식료품을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어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침저녁매대도 운영하여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에도 손님들이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하였다 한다.

산물고기와 갖가지 식료품들이 진열되어있는 아침저녁매대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신속하고 친절 한 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여러가지 계절옷들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전제품들이 진열된 2층 매대들의 배치가 특색있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단위시간 동안에 많은 손님들이 상품

을 고를수 있도록 매대들의 구별을 주면서도 원하는 매대로 쉽게 이동할수 있게 통로를 조성해놓았기 마음에 들었다.

또한 갖가지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벽면에 붙여놓아 그것을 보고 구매자들이 자기가 고를 옷의 양상과 형태를 가늠할수 있게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편리한 봉사환경과 조건은 다른 층의 매대들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4층에 꾸러진 대중식당에서는 즉석에서 여러가지 요리

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자들이 보는 앞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맛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이채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안온하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5층 식당에서는 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료들도 봉사받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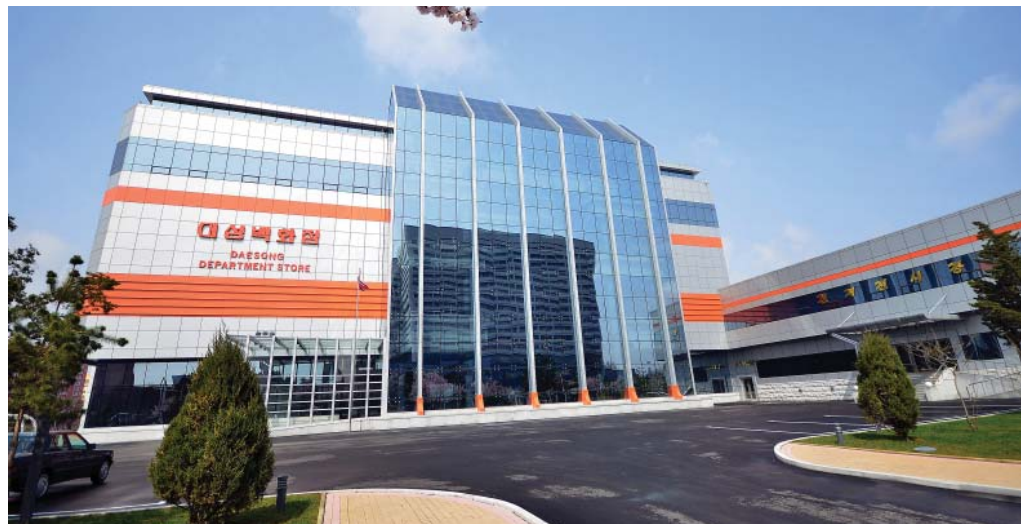
창문너머로 내려다보니 현대적으로 꾸러진 대성백화점

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이곳 문수지구에 어제는 인민들의 문화식사와 건강증진을 위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문수물놀이장 파병원, 옥류아동병원 등이 일떠서고 오늘은 이렇게 대성백화점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정녕 인민의 복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시책이 한눈에 안겨오는 이곳을 떠나며 우리는 보다 행복할 래일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강류석



새 세대들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 소행

얼마전 평양교원대학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황해남도 용진군 기린도고급중학교 소학반 교원으로 자원진출한 김영심을 바라보는 환송모임이 있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일군들의 많은 일군들과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뒤편까지 기린도고 떠나시는 김영심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김영심은 평양중등학원 졸업생이다. 학원시절 그는 예술영화 《멀리 있는 섬》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섬은 비록 작아도 탐홍색공화국이 휘날리는 조국의 한부

를 보며 가슴깊이 새겨안은 김영심은 이제 크면 섬마을학교 교원이 될 결심을 다지었다.

그날의 결심을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하면서 실천으로 옮기었던것이다.

청춘시절에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있다.

리수덕원산교원대학 졸업생인 오은경은 어려서부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원이 될것을 꿈꾸었다.

남포혁명학원을 졸업하고 리수덕원산교원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그는 희망의 나라를 쫓고 학과학습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러던 두해전 9월 신문과 TV를 통하여 섬분교와 최진

원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한생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처럼 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최진원지대 학교로 갈 속생각을 굳히었다.

그의 결심은 대학청년동맹조직의 지지를 받았다. 그와 함께한 공부하던 동무들도 그리고 같은 대학 졸업생들도 최진원지대, 섬마을학교로 진출할것을 열렬히 지망해나갔다.

원산사범대학 졸업생들의 마음도 한층으로 흐르고있었다. 지난 2월 졸업생들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던 원산사범대학 유육진의 생각은 깊었다.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이 없다면 그 무슨 참된 삶이라 하랴. 내 한생애 언제나 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다진 그는 대학청년동맹조직을 찾아가 최진원지대, 섬마을학교에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대학의 다른 졸업생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면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불같은 마음을 안고 최진원지대, 섬마을학교로 탄원해나갔다.

이들만이 아니다. 얼마전 평안북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 14명이 산골학교와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하였다.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 김은성, 김경덕, 김동일,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 김대일은 최진원지대의 학교들에 진출한 대학졸업생들처럼 외진 섬분교에서 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해나갔다.

본사기자 홍범식

진국마감건재부분 과학기술성과 전람회 — 2019를 돌아보고

현대적미감이 나는 친환경적인 녹색전재들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국마감건재부분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가 진행되었다.

마감건재의 다양화, 다중화, 다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전람회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각도 인민위원회산하 각종 기관, 마감건재연구 및 생산단위들에서 내놓은 친환경적이며 현대적미감이 나는 녹색전재를 비롯하여 현대건축에서 널리 쓰이는 25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제품들이 실물, 도해 등으로 전시되었다.

마감건재의 주제화와 설계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전람회에서 마감건재의 연구와 생산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과 기술교류가 진행되었다.

건재는 건설의 3대 요소중의 하나이다. 설계와 시공을 잘하였다고 해도 건재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지지 못하면 시대적미감에 맞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울수 없다.

철강 및 첨가제부품과 돌, 요업, 유리건재부품, 목재 및 보온재부품 등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된 전람회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어느 전시대에도 그러하였지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출판한 녹색건축물들

은 참관자들의 더 큰 주목을 끌었다.

이 제품의 개발자인 김현철연구사는 기능성특색건축장식재료는 인체에 활력을 부여하는 음이온과 먼적외선을 방출시키며 살림집과 공공건물 등 각종 건축물들의 내부와 외부마감장식에 리용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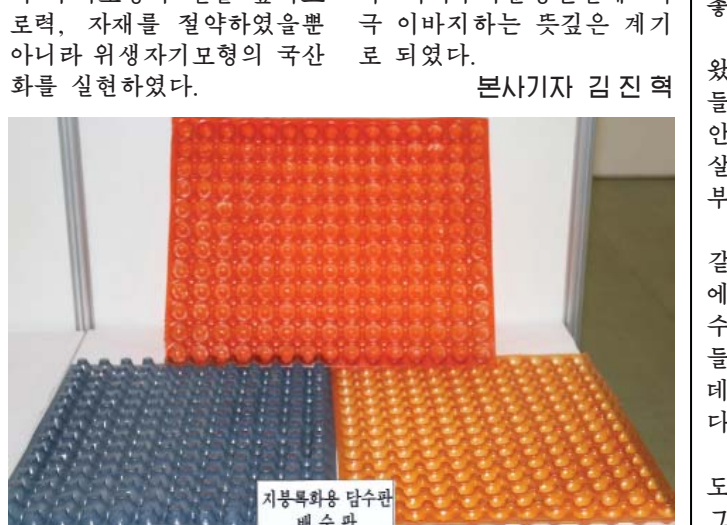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 건축장식재료는 외적인 에너지를 공급이 없이도 자체로 음이온과 먼적외선을 함시적으로 방출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자재의 힘과 기술, 자기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여 세계적수준에 도달할수 있는 훌륭한 특색건재, 기능성건재들을 얼마든지 개발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는 가치있는 건축장식재료였다.

천리마리일공장에서 내놓은 삼지연지구의 기호에 적합한 내용성외벽타일생산기술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평양건재공장전시대에도 다양화, 다중화된 위생자기 제품들이 적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수지이형의 주제화를 실현하여 수지모형의 질을 높이고, 로력, 자재를 절약하였을뿐 아니라 위생자기모형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세계재료과학계를 놀래운 젊은 과학자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유철준—

지난 2월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5명의 사람들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재료과학부 강좌장인 박사, 부교수 유철준도 있다. 새로운 재료설계

방법론과 재료설계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서 특출한 역할을 한것으로 하여 세계재료과학계를 놀래운 유철준박사를 얼마전 《통일신보》가 만났다.

1992년 유철준은 7.15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역사학을 입학문건에 《1지방 역사학부, 2지방 물리학부》라고 썼다. 그러나 물리학과목시험에서 남달리 뛰어난 성적을 받은 그는 물리학과 학생으로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제일 힘든 리론물리학을 전공할데.)

그는 리론물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사실 물리는 그에게 있어서 제일 자신있는 과목이었다. 불타는 정열이 안받침된 그의 뛰어난 두뇌는 교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대학졸업후 그는 3년동안 박사원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 재료설계기초에 관한 논문들 써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당시로서는 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료설계라는 미개척지를 밟은 셈이었다. 그는 발전된 몇개 나라의 일부공대학들에 서만 진행되고있는 재료설계분야에 대담하게 도전해나갔다.

박사원과정을 마친 그는 각 학부에서 전도유망한 인재들을 뽑아 꾸린 대학의 기초과학센터(오늘의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로 배치되었다.

2005년 평양에서는 학계의 관심속에 조선도이클린드 응용과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유철준은 자기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도이클린드 아헨기술종합대학의 재료학전문교수들은 그의 연구성과에 놀라움과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그를 연구성으로 초청하였다.

아헨기술종합대학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일류공대

학으로 손꼽히는 대학들이운데 하나이다. 유철준은 이 대학에서 3년동안 연구성으로 있으면서 《다중적도방법에서 재료과정에 대한 집필자적도의》라는 논문을 집필하여 도이클린드에서 자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느 한시도 잊지 않은 조국의 꿈, 그리운 모교로 돌아온 유철준은 물리학과 교원으로, 재료과학부 교원으로 교수사업과 연구사업에 전심하였다.

2012년 공화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금 재료설계강좌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30대에 박사과 되고 강좌장이 된 그는 강좌를 재료설계분야의 학술중심, 관록있는 청년연구집단으로 만들고 여러명의 석사와 박사

를 키워낸 훌륭한 교육자이며 10월8일모범교수자이다.

그 나날 유철준박사가 속한 연구집단이 내놓은 새로운 재료설계리론과 방법들은 세계재료과학계를 놀래웠다.

그는 재료설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메테리얼즈로 이루어진 합금과 고용체로의 전자적구조와 성질을 효과적으로 모의예측하기 위하여 확장정규에 관한 새로운 착상과 공식을 제시하고 세계재료과학계가 그의 이름으로 명명할 유—메테리얼스 확장평균방법을 내놓았다.

다정한 교육자 부부

유철준박사의 연구집단이 국내외의 잡지에 제출한 논문들

뿐만아니라 고성능비밀컴퓨터를 리용한 통합재료설계지원체계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세계적으로 초점을 모으고있는 새로운 재료들의 구조와 물성을 해명하였다.

유철준박사가 Nature잡지와 영영인자가 9이상인 잡지들을 비롯한 권위있는 SCI급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무려 수십여건을 헤아린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재료설계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들에 10여차례 참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술적진위를 높이고 공화국의 기초과학발전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유철준박사는 국제첨단재료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세계의 여러 일류공대학의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있다.

자그마한 산골마을의 소년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리라 그 누가 생각조차 했던가.

《평범한 군인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오늘처럼 성장할수 있는것은 수재교육체계, 본과교육으로부터 박사원교육까지의 연속교육체계를 비롯하여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유철준박사가 그의 연구집단은 나날의 자연에너지를 산업창설에 이바지하러는 꿈을 안고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유철준박사는 말하였다. 《저를 2.16과학기술상수상자로,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에 더 큰 연구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를 육성하는데로 교수사업을 지향시켜나갈것입니다.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에서는 무조건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것이 저의 최우명입니다.》

세계재료과학계를 놀래운 유철준박사. 이 시각도 그는 재료설계분야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세계의 과학계를 아낌만만하게 정복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외세공조는 북남관계를 해치는 행위

북남관계문제, 북남선언리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변명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지금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조미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해달라.》고 하였고 남조선감정 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부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북군사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놀음도 벌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한미실무팀》회의에서 《대북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얼마전에 진행된 제11차 《한미일안보회의》에

서는 미국방성과 국무성, 일방방위성관계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사이에 대조선제제강화, 《한》미일군사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예속적인 《한미동맹》, 《한미일공조》의 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에 기대할수 없다.》, 《남북대화할 수 있는 대북지원을 하는 자주적으로 하면 되는것이 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당국은 미국의 대변자노릇을 할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남북관계개선을 사사건건 가로

막는 《한미실무팀》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길게 없고 그렇게 되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칠수 있다.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협력과 조속한 합의들이 줄도 끊어 마련되었다. 하지만 북과 남사에 이루어진 합의들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인해 웅당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외세와의 공조에 매여달린다면 그 결과가 지난날과 달리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판문점선언에도 전면 배치된다.

민족자주적립장이나 아니면 외세와의 공조나 하는것은 오늘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시금석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변명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조의 길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어떤 사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두체 변속이나 올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법이다.

북남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오늘 북남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북남선언들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리행해나가는것이다. 온 겨레와 세인의 지지관등을 받은 북남선언들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평화, 통일변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밝힌 력사적인 선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철폐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가는 문제 등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

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담은 실천강령이다.

바로 이 선언들을 충실히 리행해나갈 때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고 평화변명과 통일을 위한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된다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리행해야 할 당사자인 남조

력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답보상태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선언리행에서 내서는 근본문제들을 제쳐두체 그 무슨 인도주의의 원과 교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이 아니라 북남선언리행을 위해 할바를 다하는듯이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해보려는것이요. 그것이 겨레의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가 무엇을 바라는지 똑똑히 알고 북남선언에 제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성실히 리행하는 실천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근본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집요한 적대행위

대외 대북간담도미싸이 《미니트맨-3》을 장비한 제91 미사일비행편대 등이 참가하여 매해 비밀리에 벌리는 전지구적비밀의 핵전진습습이다. 지난 2017년 10월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먼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섀너》 핵공격연습때는 공화국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별도의 작전을 숙련하였었다.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수표하고 돌아갔다 공화국을 선제공격하

기 위한 미국의 핵공격훈련에 도적이고양이처럼 참가하였으니 알리가 다르고 말과 실천이 다른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는 여전히 대결과 적대의 과거에 살고있다. 그렇기 않다면 이미 중단하게 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은 왜 명칭을 바꾸어달며 계속 강행하고있었는가. 얼마전에 미국에서 3억US\$ 이상에 달하는 함대공미싸이를 구매하기로 한것도 조선반도에서 화약재를 피우려는 환영 못할 행위이다.

지금 북남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최대로 신중히 해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북남관계의 기본장르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해 노력할 때는 군사적대결을 추후해는것은 사실상 북남관계추진력도 평화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남관계의 진전을 바라다면 동족대결의 흉심을 깨끗이 털어버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사기자 유금주

남조선에서 당국의 굴욕적인 외세의존행태를 비난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5월초 남조선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북남관계,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한미실무팀》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이 벌인뒤 부산련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주권련대 주최로 진행되었다.

회견에서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북미회담파전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으며 남과 북이 합의했던 사업들도 《한미워킹그룹》이 제동을 걸고있다. 《한미워킹그룹》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조선총독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투쟁에 모든 부산시민들이 동참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러 발전한 범민련 부산련합의 장은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8천만겨레의 그 마음을 자신있게 받아들여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와 자결,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

동》 《(평화행동)은 10일 《《한미워킹그룹》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은 개성공담채

《현재의 상황은 종속적 《한미동맹》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반도평화도, 남북관계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북남관계문제에서 《속명론과 매배주의, 방관자적태도를 벗어나고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당당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친미사대, 외세의존을 끌장내고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거머쥐어야 한다고 북남선언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면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자주독립》을 외치는 목소리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집요한 적대행위

대외 대북간담도미싸이 《미니트맨-3》을 장비한 제91 미사일비행편대 등이 참가하여 매해 비밀리에 벌리는 전지구적비밀의 핵전진습습이다. 지난 2017년 10월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먼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섀너》 핵공격연습때는 공화국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별도의 작전을 숙련하였었다.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수표하고 돌아갔다 공화국을 선제공격하

기 위한 미국의 핵공격훈련에 도적이고양이처럼 참가하였으니 알리가 다르고 말과 실천이 다른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는 여전히 대결과 적대의 과거에 살고있다. 그렇기 않다면 이미 중단하게 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은 왜 명칭을 바꾸어달며 계속 강행하고있었는가. 얼마전에 미국에서 3억US\$ 이상에 달하는 함대공미싸이를 구매하기로 한것도 조선반도에서 화약재를 피우려는 환영 못할 행위이다.

지금 북남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최대로 신중히 해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북남관계의 기본장르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해 노력할 때는 군사적대결을 추후해는것은 사실상 북남관계추진력도 평화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남관계의 진전을 바라다면 동족대결의 흉심을 깨끗이 털어버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사기자 유금주

다른 희생자에 대한 자료에는 후면총상과 두개골자상 등으로 볼 때 방어적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살인이라는것이 드러났고 있다고 하여 공개하지 말라고 씩여져있다.

방송은 이에 대해 폭로하면서 5.18희생자들의 검시기록은 전두환신군부의 《자위권》발동중장이 얼마나 파멸적인 거짓말인지 생생히 말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대구에서 서민총재를 내며 쓰레기수집차에 올라다치던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이 여러 로동단체들로부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법》 등을 위반한것으로 줄고발당하는 망신을 하였다.

그 무는 《민생대장정》을 한담시고 마주 돌아치면서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다 못해 서민인양 사친까지 내몰리고있는데 대한 남조선민심의 웅당한 분노의 표출이다.

가관은 황교안이 바로 자기와 《자한당》패거리들의 몸값을 스스로 쓰레기로 만들고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이 《자한당》패거리들을 끌고다니며 한 짓거리란 가는 곳마다 한 쓰레기같은 막말과 망동을 부린것뿐이다. 별명 그대로 교활하며 《민생대장정》을 내흔들며 《좌파독재》, 《헌법수호》를 앞장서서 고아냈고 몸값을 울리기 위해 피눈은 공안검사경력까지 자랑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갈론》을 무지하게 휘둘러왔다.

《자한당》패거리들이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민생대장정》 놀음은 벌린것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속된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혹을 떼려다 불인 격이 된 《장외투쟁》 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극단적인 반 《정부》 공세에 매달리고있는 《자유한국당》 패들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5월초부터 현 《정부》의 총체적인 실책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 당의 원내대표 라경원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반 《정부》 집회를 하기로 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층은 《자유한국당》 패들의 이러한 행위를 리념결과와 사회적갈등을 부추기는 망상으로 단죄구탄하면서 들고일어나고있다.

4.16련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을 비롯한 각계층 투쟁단체들과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그 무슨 반 《정부》 집회와 《민생대장정》이란것들을 벌리며 국우보수충구합에 나섰다, 민

심을 기만하여 저들의 옛 세상에 되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반 《정부》 집회에 매달리고있는 《자유한국당》 패들의 속심을 날날이 까밝히고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패들이 집회장에서 현 당국의 지지자들을 《찬려》에 빙어 비난하고 《중복과과정권》, 《빨갱이정부》, 《청와대폭과》 등의 온갖 험담과 극단적인 망발들을 제쳐대며 리념결을 부추기고있는데 대해 《초불혁명에 대한 모독》, 《국헌에 대한 모독》, 《용납할수 없는 망언》이라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광화문광장과 《자유한국당》 당사앞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초불집회와 《시민헌법재판》 등 다양한 투쟁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지역단체들과 시민들이 5월을 《자유한국당해산의 달》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투쟁에 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민생대장정》 놀음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에서 반 《정부》 집회를 벌려놓았던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들은 《황교안은 물러가라!》, 《적폐정당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물벼락을 안기는 각계층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쫓겨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특히 얼마전 광주에서 진행한 광주주민봉기 39년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가들이 각계층의 분노와 거센 항거에 직면하여 곤욕을 치르였다.

5.18기념재단, 《5.18력사의 폭적범 광주운동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사가 시작된지 2시간전부터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5.18망언처벌》, 《자유한국당해체》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자한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런가 하면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들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에워싸고 야유, 조소를 보내으며 지어 물을 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로 하여 《자유한국당》 패들은 2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기념식장까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야 20분만에 겨우 도착하면서 특특히 망신만 하였다.

민주개혁당들도 민생악화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지지층결속에만 몰두하고있다. 민생해결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있다. 민생이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모든 책임은 정략적리익만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불어내고있다.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 패들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민생문제를 놓고 회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민생외면정당》, 《국

회외면정당》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황교안의 《민생대장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황교안을 가리켜 《자랑스러울것이 없는 《5공》 검사》, 《과거에 얽매여있는 우파》, 《전두환군사 《정권》 시기의 공직자출신》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황교안은 역시 정치생동이》, 《초창과》라는 환멸과 비난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인터넷에 《자유한국당》의 망발과 집회를 비난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는 속에 국민정원계시판에는 전두환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청원자수가 22일현재 180여만명에 이르렀다.

제반 사실들은 《자유한국당》 패들이 보수화합과 재집권야망실현을 위해 최후발악하고있지만 민심의 규탄과 배격만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 광주행이 아니라 무덤행으로!

김 송 립

참 가련도 하구나
싸늘한 랭대 분노의 항의에
개물러듯 움츠러든 황교안
어제는 광주의 물세레 들스더니
오늘은 광주의 벼락을 맞았구나

성난 민심이 구천에 번개로 일어
내리는 비도 저주의 창살로 쫓는다
5.18혼이 잠든 광주는
시술한 분노를 뿜었다

—황교안은 물러가라!



5.18을 모독한 망언자들
정계는커녕 한사코 끼고도는
광주를 피에 잠근 살인마의 후에
중요의 인과가 덮쳤다
울타리 잡아뜯고 길어진 길로
황교안이 쫓겨간다 《자한당》이 뺄소
친다

그래도 기회가 되내로 광주를 찾았다?!
나발을 말아 썬다 꾸지 말아
광주의 배척 온 남녘의 벼림을 받은
내가 갈길은 오직 하나
광주행이 아니라 무덤행이다

시 인간 쓰레기

김 영 일

희폐개 생색을 내누나
《민생대장정》 떠들며 여기저기
변변한 낫짜 들이치는 황교안
지랄, 악담, 너세로 멀다 못해
나중엔 쓰레기차 오르는 추태를 부리네

황교안 너는 인간쓰레기
더이상 악취로 민심 흐리지 말고
이왕 오른 쓰레기차 고스란히 붙잡고
력사의 오물장으로 썩 가거라

거리의 바닥에 오물을 모으며
민심을 사불가 서민홍내 내더니
그것도 성차지 않아 쓰레기차 울랐네
그것 참 격격이다 민심이 조소한다
정말 쓰레기같은 놈 제자리를 찾았다고



더이상 《대장정》 간판을 내걸고
배신과 반역의 구린내 풍기지 말아
소름돋쳐 민심을 찢을 뻔했다
쓰레기차에 오른 그 불골
오물더미와 잘 어울려거니

그래도 직행하라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남조선 각계층 서울에서 초불투쟁, 대전 시민들 강력히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각계층이 1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자한당》 해산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5년전 황교안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의 방해때문에 부실수사로 끝난 《세월》 호참사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한당》이 여전히 진상규명을 가로막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4월과 5월은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악몽같은 시기라고 하면서 그들은 왜 살수 있었는야 구하지 않았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가고 묻는 부모들을 《자한당》이 《중복》으로, 《시체팔이》하

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자한당》이 있는 한 진실은 구명되지 힘들다고 하면서 역적당해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적폐청산의 열기로 가득했던 이 소중한 광장. 력사의 현장에서 《자한당》을 해산시킬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적폐세력을 청산하자》, 《5.18학

살의 주범, 《세월》 호참사의 주범 자한당을 해산시키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황교안, 라경원 처벌하라!》고 웨치며 역적당이 해산되는날까지 싸울 의지를 피력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와 39주년 대전총청 5.18민

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대전역광장에서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대전시민 초불대회》를 개최하였다.

발언자들은 광주봉기정신을 모독한자를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시민원의 위촉장을 력사적실로 받아들이는 등 《자한당》의 망명을 날이 갈수록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주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우리 민족 대안결로 조국통일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5월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어 남북선언리행에 떨쳐나서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5월정

신 계승하자!》,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사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사앞에서 참가자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5.18력사의공과 망언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사망선고를 내리다.》고 하면서 《자한당》의 장례식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자한당》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중미마찰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역분쟁

지난 9일부터 미국의 워싱턴에서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사이의 제11차 경제무역고위급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들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중미쌍방은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였다.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3~4주안에 협상안에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250억US\$ 규모의 상품에 대해서도 25%관세를 부과할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미국은 10일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발동하였다. 그에 따라 2000억US\$어치의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대한 관세 10%에서 25%로 오르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16일 미상무부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의 대규모통신장비기업인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산하기업들과 거래를 할수 없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추가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하여 13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경기도발표문에서 이를 문제시하면서 무역마찰의 격화는 두 나라와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부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는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하나의 길》 국제협조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지위를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중국은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도 확대하였다.

중국의 금성장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강한 경제심을 불리하였으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는데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환율과 저속소유권의 침해, 보조금정책의 투쟁성 등을 문제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던 미국은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려 하고있다.

외신들은 중미무역전쟁이 급격히 번화되고있는 세계경제에서도 심화되는 모습은 다시말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빠져들고있는 미국의 심각한 대립의 필연적산물이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 중미사이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며 두 나라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갈수록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김광률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각종 버섯이 약 870종이나되며 그중에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버섯이 많습니니다.

단백질이 많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으로 리용해왔다고 하는 버섯중에는 송이버섯과 같이 영양식품으로도 전래리용되던것도 있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하여 장수버섯이라 불리우는 불로초나 고려약의 원료인 솔부리혹버섯, 자작나무혹버섯 같은것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버섯중에는 닭알독버섯, 팅크버섯, 독노리버섯, 붉은갓버섯, 쓴밤버섯, 활촉버섯 등 50여종의 독버섯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운데 독성이 센것은 30여종이나됩니다.

870종이나 되는데서 30종이 무는 대수인가구요.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유익한 버섯인데 왜 안되는 독버섯이 사람에게의 기분을 잡쳐놓는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을 망신시키려는 남조선의 《자한당》 패가들이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참밖에 안되는 무리지만 지난해 남조선에서 열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 응원단이 참가한데 대해 《위장평화공세》라 오도며 북남선언들을 리행해나가는것도 《안보위협》이라 황실수설하면서 계의 열갈에 먹칠하는 열간망둥이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자한당》입니다.

이 당의 원내대표라는 라경원만 놓고봅시다.

흔히 독버섯은 색깔이 화려하고 요란한데 거기에 현혹되어 잘못 먹으면 구역, 구토, 설사, 배앓음, 혼수 등 온몸이 아르고 목숨까지 잃을수 있는것처럼 라경원이 운운하는 《민생》이니, 《민주주의》니 하는따위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미 당해 보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너성 《대통령》》이라는 모자를 썼던 약년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너덕위에 귀를 기울이지다가 얼마나 큰 화를 당했는지.

박근혜가 《유신》독재자의 후예라던 라경원은 《사학제비》의 딸이라는 점이 좀 다른뿐 도둑의 성격이나 사고, 언행에서는 일맥상통한 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닮았는가를 몇가지 보기로 합시다.

《얼음공주》, 《랭혈동물》로 불리우는 《유신공주》처럼 라경원도 정계에 나서

에게 보고하였으며 그가 작전계획을 승인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광주봉기당시 직승기에서의 기관총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31항공단에서 탄약을 관리하였던 최홍소는 직승기에서의 사격을 끝내내 부정하

는 전두환을 보면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린다고 하면서 1980년 5월 22일 직승기 2대가 출격명령을 받고 광주로 향하였다고 언론에 증언하였다.

갑작스러운 출격명령과 직승기의 무장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면서 전시에만 사용하는 고풍탄까지 출격되

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광주로 출격한 직승기는 탄약 500발정도를 발사하고 돌아왔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권이여 밝혀지고있는 광주학살자료들은 전두환역도야말로 광주학살의 진범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본사기자

를 보냈던 라경원이 불과 20일도 못되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 모른다.》고 악담하면서 단일린 구성을 반대하는 편지를 쓴것으로 하여 《정말 뻔뻔하다.》, 《어찌구무없는 병을 받았습시다.

북침전쟁연승중단은 《북전리품》, 《안보제》라 고 양말을 부리고 전세계가 지지관왕복 남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남측의 일종과 강요만 반영된 선언》이라며 환것도 김다고 꿩칩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 달려가서 《북인권진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달라.》, 《남북군사합의서체략이후 안보공백의 위험성이 커간다.》면서 《전쟁연승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침방울을 뿜긴 대결약너입니다.

정말 추악한 오명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약년의 분신—라경원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다이나마 이트르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김부성이나 《과과 무죄, 우파우죄》를 고이대는 김진태 등 《자한당》 패가들은 정말 남조선사회를 질식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파란시키는 독버섯같은 존재들입니다.

부정부패와 파쇼독재,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의 수렁에서서만 서서있는 《자한당》이라는 독버섯들은 초호호 없애버려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초불로 《타그네》라는 폐타를 불태운것처럼 《자한당》 해체라는 화물로 씨종자까지 태워버리고 그것들의 번식지도 말끔히 소독해야 합니다.

《자한당》 해체라는 료원의 불길만이 더러운 독버섯들을 박멸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혁

《독버섯》

자부터 《매서운 눈, 무표정, 강한 어조》로 하여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선사받았습시다.

10년전쯤에는 아당의 한 《국회》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한다고 하여 《어디서 지금》하고 소리를 질러 《버럭경원》으로 불리우기도 했던단다.

박근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라는 말을 자주 위두언것처럼 라경원은 《장애인의 어머니》라는 말로 사람들의 동정을 유도하곤 했습시다.

라경원의 《미모》도 정형수술로 만들었다는것인데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1억원 피과과를 다쳤다.》는 설이 나돌아 2011년 서울시장보선선거때 예를 먹였습시다.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서 보톡스, 프로토콜을 맞으며 주글주글한 얼굴을 켜던것과 뒤 과과과장입니다.

올해 4월 남조선경원도 고성에서 산골이 갔을 때 라경원은 재대대응을 책임진 청와대안보실장을 3시간 넘게 《국회》에 붙잡아놓았

달음이었습시다.

보수패당에 매달려 《국회》의원자리를 차지하고는 《2007년 《한나라당》의 당대표경쟁에도 나서보고 2016년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을 차지해보려고 두번이나 출마했지만 매번 박근혜에 물러 영영방아만 찧었습시다.

그 기간 서울시장선거에도 나섰지만 《선거의 너왕》이라는 박근혜의 도움으로 받지 못했.

그래서인지 《탄핵》시기 박근혜의 《당적행위》, 《탈당》, 《출당》을 앞장서 크게 고이대습시다.

《마지결친 박근혜》라고 민심의 손가락질 받은 황교안이 청와대의 《주인》자리를 넘겨대본다고 하지만 아마 권력야망에서는 라경원에게 대비도 안될겁니다.

역한 뱀새만 풍기는 독버섯처럼 너성이라는 품격을 어울리지 않게 막말과 악담만 쏟아내는 독버섯가 바로 라경원입니다.

요즘 남조선에서 화제거리

하는 라경원의 막말과 독설에 혀를 차는 정도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규탄이 비발치자 《똥을 몰랐다.》, 《누가 만들어놓지도 몰랐다.》고 구구히 변명을 하는데 그 누구가 씨종것을 보고 말했다는 소리도 있은니 그렇다고 쳐도 《수첩공주》, 《타그네》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해방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불멸하였다.》고 하여 《리완용의 환생》이라고 규탄받은것이나 5.18광주민봉기를 《폭동》, 그 유족들을 《피물집단》이라고 악담질을 한자들을 《력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어망쳐망한 개념으로 비호한것만 보아도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나발했던 《유신》후예를 빼돌렸습시다.

그뿐이 아닙니다.

라경원은 대결약너로도 악명을 떨치고있습시다.

지난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북남수단참가를 요청하는 편

말을 보냈던 라경원이 불과 20일도 못되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 모른다.》고 악담하면서 단일린 구성을 반대하는 편지를 쓴것으로 하여 《정말 뻔뻔하다.》, 《어찌구무없는 병을 받았습시다.

북침전쟁연승중단은 《북전리품》, 《안보제》라 고 양말을 부리고 전세계가 지지관왕복 남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남측의 일종과 강요만 반영된 선언》이라며 환것도 김다고 꿩칩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 달려가서 《북인권진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달라.》, 《남북군사합의서체략이후 안보공백의 위험성이 커간다.》면서 《전쟁연승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침방울을 뿜긴 대결약너입니다.

정말 추악한 오명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약년의 분신—라경원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다이나마 이트르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김부성이나 《과과 무죄, 우파우죄》를 고이대는 김진태 등 《자한당》 패가들은 정말 남조선사회를 질식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파란시키는 독버섯같은 존재들입니다.

부정부패와 파쇼독재,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의 수렁에서서만 서서있는 《자한당》이라는 독버섯들은 초호호 없애버려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초불로 《타그네》라는 폐타를 불태운것처럼 《자한당》 해체라는 화물로 씨종자까지 태워버리고 그것들의 번식지도 말끔히 소독해야 합니다.

《자한당》 해체라는 료원의 불길만이 더러운 독버섯들을 박멸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혁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발들이 체육인들과 체육에 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운동신발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할뿐 아니라 그 질 또한 높아 다른 나라의 이름난 운동신발들에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봄철 전국신발전시회-2019》에서도 류원신발공장에서 출품한 각종 운동신발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대단했다.

평천구역에서 사는 한 나

호 평 받 는 운동 신 발 들

성은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운동신발들이 아들에게 신겨 보았는데 보기에 좋고 질도 편안하면서도 질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러 왔다고 말했다.

사실 종목별 특성에 따라 운동신발들의 재질을 선택하고 설계, 제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발공업부문의 전향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환된 류원신발공장에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운동신발발견주세로 노력하면서 도전설계로 부터 완성에 이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그쁘히 갖추어 놓아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축구화, 농구화, 탁구화 등 전문체육운동신발들과 구두형식의 운동신발들, 통기성과 위생성이 좋은 그물직운동신발제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신발들을

생산하고 있다. 격렬한 운동을 전체로 하는 축구화는 갑피의 강도와 세기를 높여 든든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배구화와 농구화는 신수들이 조각으로 받게 되는 충격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하면서도 신발의 형태와 바닥무양을 서로 다르게 주는 등 운동신발들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제작하고 있다.

또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재료를 그물직에 열압착하는 기술, 아크릴수지유착액을 그물직에 여러번 접착해 하는 기술, 다색인쇄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강효과와 장식효과를 훨씬 높이고 운동신발들의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도입하여 신발창의 무게를 훨씬 줄

이고 있다. 신을안쪽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과 그물직, 아크릴수지를 결합하여 통기성과 질감을 개선하고 깔창에 오목볼록부분을 주어 신발과 발의 일체성을 보장하고 있다. 신발창의 중간에 탄성이 좋은 에틸렌조산비닐공중합수지재료를 사용하여 경량화하고 앞뒤부분을 열가소성폼성체재료로 보강하여 바닥과의 접지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운동신발들의 기술적 특성을 현대적인 검측설비로 검사하고 질적지표들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 있다.

하기에 류원신발공장을 돌아본 한 외국인들은 공장의 모든 생산체계가 현대화되었을 뿐 아니라 운동신발들이 경량화되고 질이 아주 좋다고 감탄하였다.

체육인들과 체육에 호가들속에서는 조선사람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질이 좋고 가벼운 이 공장의 운동신발들에 대한 주문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류원》 상표를 단 운동신발들을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류원신발공장 종업원들의 확고한 결심이다.

본사기자 김 철



조선의 국화—목란꽃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일찌기 천문학분야에서 돌출하여 6천여 년 전 동방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민족천문유산인 《칠정산》은 1442년에 완성하고 1444년에 출판한 력리론을 쓴 책이다.

《칠정산》은 천체들의 위치와 그 운동, 고 태양과 달의 운동리론, 별에 의한 시간결정법, 낮과 밤의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해가 달과 달가림의 예보리론, 행성들의 운동리론, 달의 자리길과 해길과의 사립점의 운동리론 등 우리 나라에서 실

편과 외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매 편은 다시 소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어 총 6권 8책으로 되어 있다. 내편에서는 매달 하루날자와 24절기를 결정하는 방법,

민족천문유산 《칠정산》

태양과 달의 운동리론, 별에 의한 시간결정법, 낮과 밤의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해가 달과 달가림의 예보리론, 행성들의 운동리론, 달의 자리길과 해길과의 사립점의 운동리론 등 우리 나라에서 실

지 써은 력리론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 내편리론에 따라 만들어진 력은 그후 오래동안 쓰이었는데 17세기 후반기에 력법의 한가지인 시현력이

나온 다음에도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계속 쓰이

었다. 《칠정산》의 외편에는 아라비아력에 대한 리론을 실고 있다.

《칠정산》은 15세기 전반기 높은 수준에 올랐던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달전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천문유산이다.

본사기자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람회 진행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람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벨루스 등 여러 나라의 지역 4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람회에는 금속, 전자, 기계, 건재, 운수, 보건, 경공업, 식료일용품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20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박용식 조선국제전시람회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해마다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봄철국제상품전시람회가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와 지역의 경

제발전에 긍정적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자주권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시람회장은 매일 찾아오는 각계층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 흥성거려왔다.

전시람회기간에 기업체들이 의 경제기술적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와 만담, 제품소개 등 호상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람회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 되었다.

본사기자



늙은이들의 생일맞이이름과 그 유래

지난날에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이리저리한 제약을 받아 수명이 길지 못하였다.

흔히 60살을 산 사람으로 장수한 로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60살이상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특별히 생일 맞이이름을 정하고 크게 쇠곤 하였다.

60득생일을 쇠 다음부터는 10년을 계기로 생일상을 차려 늙은이들을 위로하여주었다.

생일 70를 《고회》라고 하면서 생일을 쇠게 하였다. 고회라는 말은 사람이 70살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

다는데로부터 《인간70고회》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생일 80를 《팔순》이라고 하면서 크게 쇠었다. 팔순이란 순이 여덟번 되었다는 데로부터 유래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순이라 하면 10일이라는 말로 통하지만 10들이라는 의미로도 쓴다.

생일 90를 《술수》라고 한다. 술수란 한자로 《군사술》을 초서로 쓰면 아홉과 열이 함께 쓰이므로 그것을

풀어놓으면 90이 된다는데로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생일 100를 《백수》라고 하였다.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는데로부터 부른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민족은 수자가 겹치는 생일도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고 쇠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늙은이들을 존경하며 례의를 귀중히 여겨온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다.

본사기자

사화

평양성의 군사 (2)

글 김정철, 그림 리성일

바로 이때였다.

《아뢰옵게 황송하오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꿇어앉아있던 한 군사가 불쑥 몸을 일으키며 큰소리로 말했다. 순간 군중의 눈길은 일시에 이 군사에게로 쏠리었다.

선조왕은 좀더 가까이 오라는 뜻으로 손짓했다. 그러나 임금곁에 시립하고있는 관원이 탄간아래 벼슬아치들을 향하여 그 분부를 전달하고 이어 어서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가 울렸다. 그 군사는 허리를 굽힌 채 란간쪽으로 다가가서 반복하였다.

《그대 무슨 청이냐?》 선조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한껏 죽이고 회의를 기다렸다.

《상감마마께서 몸소 나오신 이 기회에 우리 평양군사들에게 무과과거시험을 치르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젊은 군사의 음성은 우렁우렁하면서도 다소 떨리었다. 란간아래 늘어선 관원들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군중은 술렁거렸다. 참으로 너무나도 왕정같은 청이었던 것이다.

《무과를 치르게 해달라고?》

임금은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 곁에 있는 령의정을 돌아보았다.

《경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에 령의정은 《황송하옵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옛날에도 전란때에 무과를 보인 전례는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왜적들이 눈앞에서 박두해오고있는 지금에서 박두해오고있는 지금에서 그런 경향이 못되는가 하옵나이다.》

《어— 그렇다? 험테 전례도 없고 아직 형세가 그리 긴박치 아니하니 이 군사의 청을 받아들이는게 어떻고?》

《과시 지당하옵나이다.》 령의정은 또 머리를 조아렸다.

이리하여 평양성에서는 평시에도 바랄수 없었던 무과시험이 벌어지게 되었다. 시험장은 려관정 앞뜰로 정해졌다. 임금이와 조정의 관료들이 려관정으로 나아가니 대동관들이 있던 군중도 그 뒤를 따랐다. 려관정 앞에는 즉시 환관이 종바리만 한 원정을 그린 목표판이 세워졌다.

이윽하여 한 관원이 나서더니 백보의 거리에서 한순(5대)에 이종(2대를 맞히는 것) 이상을 한 사람이 주시했다. 사수는 사람들의 예간장을 태우며 석상마냥 움직이지 아니 하였다. 그는 어쩌면 땅에 녹아불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런중에 돌연 누군지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명중이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사수가 시위를 언제 놓았는지도 몰랐는데 화살이 파리에 박히는 음향이크따들었다.

살을 날려 다 명중하였다.

세번째부터는 겨누는듯 마는듯 하였으나 죄다 까만 원점에 꽂히었다.

활소기를 마친 젊은 군사는 활리에 나오던 때와 똑같은 자세로 그곳을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어쩌나 마음이 흉측하고 기웠는지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 그의 몸을 두드리며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았다.

평양성군민은 지금까지 가슴에 서려있던 우울과 불안을 이 순간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음산하던 하늘은 어느덧 맑게 개이고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렸다.

선조왕도 기쁜기에 환한 웃음을 띠우며 그에게 활을 또 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활을 활이네요?》 여덟 정도의 젊은이들이 더나와 역시 훌륭한 솜씨를 보이고 활격하였다.

《네 이름이 무엇이야?》 《소인의 천한 이름은 김진이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랐느냐?》

《이 성안의 백성들이 흉악한 왜적의 침입이 막두한 지금에도 평양군사들을 믿지 않고있는것 같으니 우리 군사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싶은 마음뿐이였습니다.》

《뭐? 군사들의 힘을 보이 고싶었다고?》 《그런 심정이였습니다.》

선조왕은 감심한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김진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오늘 누구나 원하는자는 무과를 치르게 하라!》 하고 갈림목소리 로 령을 내리었다.

끝날줄 알았던 무과시험장면이 군중의 눈앞에 새로이 펼쳐지니 기뻐하던 사람들의 환성이 다시 터졌다.

《이름이 김진입니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황송하옵나이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황송하옵나이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황송하옵나이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황송하옵나이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황송하옵나이다.》 《이런 기회 없었더라면 내 참으로 훌륭한 명중을 얻지 못할뿐 했구나. 너는 무과에 합격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활무해야 하겠다.》 《상감마마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푸시니 망국하옵나입니다.》

젊은 군사 김진은 황공하게 이르며 머리를 쭈뼛

그리고 활소기를 끝낸 뒤 일

